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독보적인 자유
New Generation NX
PHEV 450h+ / HEV 350h
LEXUS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2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월 6일 2025년 2월 3일 월요일

광주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립 속도 낸다

상무역~광천권~광주역 연결
1·2호선 연계로 편의성 확대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사업 타당성 높아 빨리 추진을"
광주시, 2032년 완공 목표

광주시가 더현대 광주 등 국내 최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광천권역 교통체증 해소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광천상무선 도시철도' 개통에 속도를 낸다.

교통전문가들이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등을 오가는 '광천상무선' 노선에 대해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의 사업 승인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4일 광주교통공사에서 '광천상무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내로 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광천상무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르면 이달 내로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2032년 완공이 목표인 상무광천선 계획 노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기아자동차, 종합버스터미널을 거쳐 더현대 광주 등 개발 대상지인 방직공장터,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7.78㎞ 동서축 횡단 노선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6925억원이며, 이 가운데 도시철도 법정 보조율에 따라 60%의 국비 지원을 받는다. 나머지 40%는 시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전·일방부지 개발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과 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모두 조달하면 시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과는 다르게 지하 터널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 공사 중 발생되는 교통문제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지하철)와 BRT(간선 급행버스)를 동서와 남북축으로 동시 투입할 방침이다. 최단기 완공 목표는 BRT 2027년, 도시철도 2032년이다. BRT는 '제1차 국가 BRT 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돼 추진하는 사업으로, 백운광장~광천사거리~광주희망병원 구간을 운행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특히 '상무광천선'이 광주도시철도 1·2호선,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광천권역 대규모 개발계획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물닭의 물고기 사냥 세계습지의 날인 2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 연못에 서식하고 있는 물닭(흰이마물닭, Eurasian Coot, Fulica atra) 한마리가 사냥한 물고기를 입에 물고 유유히 물살을 헤쳐나가고 있다. 수초나 작은 무척추동물을 먹는 습성이 강한 물닭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은 드문 것으로, 먹이가 부족하거나 경쟁이 치열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입춘 맹추위

영하 10도·6일까지 20㎝ 눈 예보

절기상 입춘(立春·3일)이 찾아왔지만, 광주·전남에선 다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일까지 최대 20㎝ 이상 폭설이 예보되면서, 또 한 차례 눈 피해가 우려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으며, 8일까지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다"고 2일 예보했다. 한반도 북쪽 상공에서 찬 공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한기를 내려보내고, 서해상 습기를 유입하면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3일 낮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는 8일까지 영향을 이어가면서 한파·대설·강풍·풍랑 등의 특보발령도 예상된다.

기상청은 3일 밤부터 4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3~8㎝의 눈이 내리겠으며, 전남 북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다. 같은 기간 전남 동부지역에도 1~5㎝ 눈이 내리겠으며,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4일 오전 무안·함평 등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많은 눈이 내려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기상청은 눈이 6일까지 이어져 영광 등 전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20㎝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온 역시 지난 주말에 비해 6~8도 가량 뚝 떨어지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1도·낮 최고기온은 0~3도에 분포하겠으며, 4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영하 5도·낮 최고기온 영하 3~0도로 매우 춥겠다.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20m, 그 밖의 지역에서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걸리면 큰 일" 고령층 호흡기 질환 공포 ▶6면
KIA 조상우 "몸 상태 이상 없다" ▶19면
광복 80년 - 광주 서구 곳곳 일제 군사시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김영록 전남지사 대선 출마 선언 '초읽기'

지역 민심 업고 민주당 '호남 주자'로…김부겸·김동연·김두관 등 잠룡들 광주·전남 잇따라 방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의 호남 공략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들이 잇따라 '텃밭' 광주 방문을 계획하는 등 세 결집에 나서고 있으며, 비명(비이재명)계 인물들 역시 광주를 시작으로 대권 출마를 위한 물밑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오는 7~9일 광주·전남을, 김두관 전 의원은 10~12일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도 이달 중 광주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을 방문해 시·도민을 만나며 지지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이어 텃밭 다지기에 나서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속 비명계 대권 주자들의 구심적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호남 대표 잠룡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끊임없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지역 민심을 대변하면서 대선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해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데다 민선 7기부터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호남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대선 잠룡들의 '텃밭 다지기'는 호남 역할론에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호남 여론이 수도권과 충청권, 부·울·경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호남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울·경에 호남 인사는 23% 이상이다. 호남 여론이 부·울·경, 수도권까지 영향을 준다"며 "이 시대 최대 개혁과 혁신은 정권 교체다. 호남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